

# 주가 50배 신화… ‘K-바이오의 전설’ 코로나 치료제 선물

## 서정진 셀트리온회장 조용한 은퇴

‘렉키로나주’ 조건부 사용허가 신청  
지난해 매출액 1.86조, 66% 성장  
제약·바이오 업계 첫 매출 1위 기염  
‘은퇴’ 후 북유럽서 헬스케어 사업’

82조원 신화를 만든 한국 바이오 업계의 전설이 조용히 떠났다. 2020년을 끝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난 20년 간 K-바이오 성장을 위한 단단한 주춧돌을 세운 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를 마지막 선물로 남겼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달 31일 회장직에서 은퇴했다. 별도의 퇴임사도, 퇴임식도 없는 조용한 퇴장이었다. 퇴임 이를 전인 29일 서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조건부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3월 치료제



서정진 전 셀트리온그룹 회장

개발을 시작한다고 발표한지 9개월만에 이뤄낸 성과다.

서 회장은 당시 “경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개발 절차를 거치더라도 국민들의 공포를 하루빨리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9월 임상을 마무리하고, 연내 식약처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졌다. 이미 자체 생산시설을 통해 지난 9월부터 렉키로나주의 생산을 시작한 덕에, 국내에서는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000년, 직원 10명과 함께 벤처 기업 ‘넥솔’을 창업했던 40대 서 회장은 지난 21년간 새로운 K-바이오의 역사

를 만들어왔다.

2020년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 셀트리온그룹 3형제(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의 시가총액은 무려 82조원에 달한다. 코스피 시장 시총 2위이자, 연 매출 30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86조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 코스닥 시장에 처음 입성한 셀트리온은 12년 만에 50배 이상 성장을 이루며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성공의 신화’를 안겨줬다.

서 회장이 마지막을 준비하던 2020년은 그룹에는 기록적인 해였다. 셀트리온은 지난 해 3분기 까지 1조원이 넘는 최고 실적을 달성하며, 바이오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매출 1위로 올라서는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2020년 한 해 셀트리온의 매출액은 1조8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무려 66% 성장한 규모다.

서 회장이 지난 2002년 셀트리온을 처음 설립하던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해온 ‘종합제약사’의 꿈도 기어이 현실이

됐다. 지난해 서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설립하고 셀트리온그룹은 올해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사의 합병을 마무리해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사가 합병할 경우 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마케팅 및 직접판매 유통망 까지 갖춘 초대형 제약그룹이 탄생하게 된다.

그룹을 떠난 63세 서 회장은 다시 벤처 창업자로 돌아간다. 회사측에 따르면 서 회장은 은퇴 후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원격진료) 분야 스타트업을 창업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그동안 간담회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퇴임 후 다시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려 한다”며 “북유럽에서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신임 이사회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공식 직함을 유지하며, 이후에는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남을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2.5단계 2주 연장… 5명이상 금지 전국확대

방대본, 서울 195명 등 수도권 444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일 만에 600명대로 감소했다. 전일에 이어 이틀째 1000명 아래로 내려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7명 증가한 6만3244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600명대 확진은 12월 11일(689명) 이후 23일 만에 처음이다.

이 중 지역감염은 641명으로 26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간 일일 평균 지역감염 확진자수도 887명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신년 연휴 기간

진단검사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세전환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3일 까지이던 수도권 2.5단계 특별방역대책 조치를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지역발생 확진자는 서울 195명, 경기 201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444명이 발생했다.

다만, 시망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0명 추가로 발생해 총 962명이 됐다. 치명률은 약 1.52%로 전날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세경 기자

## 백신 상용화 기대… 세계경제 갈수록 성장

**한은, 세계경제 향방 좌우 7대 이슈**  
‘백신접종’에 하반기 집단면역 예상  
美 바이드노믹스 추진 ‘긍정적 영향’

올 세계 경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향방을 좌우할 7대 이슈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유럽내 경제 불균형 및 정치갈등 심화 가능성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강화 등이 꼽혔다.

한은은 “2021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심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미국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슈마다

〈주요이슈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슈	경제적영향 <sup>1)</sup>	
	2021년 (리스크 <sup>2)</sup> )	2022년 이후
1.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3)	▲
2. 바이드노믹스 본격화	▲(1)	▲
3.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 (1)	-
4.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2)	▼
5. 유럽 경제불균형 가능성	- (1)	▼
6. 글로벌 경기회복 불균형	▼(2)	-
7. 기후변화 국제대응 강화	▲(1)	-

주 1) ▲긍정적, ▼부정적 -중립 또는 영향 미미 2) 리스크의 상대적 크기를 3단계로 표시(숫자가 커질수록 리스크 증가). /자료=자체 평가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의 정책대응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사는 코로나19 백신의 상용화다.

영국과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가

에서 올해 하반기 중 집단면역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백신 접종 거부감이나 일부 백신의 출시 지연 가능성 등은 코로나19 초기 종식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신정부 출범으로 바이드노믹스가 본격 추진된다. 대규모 재정지출과 인프라 투자 등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쌍순한 성장전략을 통해 거대 내수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해 기존수출 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부터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가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확대될 것이다.

한은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정책이 원칙에 기반한 경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미·중간 갈등은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

## “혁신기업에 특단의 지원대책 펼쳐야”

» 1면 ‘2021 미러클 코리아’서 계속

KDI 이종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역산업(지식산업, 제조업, 농림업 등)은 중장기 일자리 창출의 주요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 전반의 고용충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감소가 큰 지역서비스업은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에 재정을 지원해 줄어든 소득을 보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체 일자리의 83%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타격이 커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고려대 특임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부터 도산하는 ‘도미노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주도할 우수 기술 기업, 혁신 기업, 협자도산 위험 기업 등에 유동성 공급,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정부 조달 혜택 부여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통해 기업의 비지니스 모델 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이 주요 먹거리인 만큼 탈중국화, 미·중무역전쟁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염두에 두고 수출 주력 산업,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히 고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주체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새해를 맞아내놓은 신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규제 개혁을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LG ‘롤러블’ 공개… 삼성, TV라인업 소개

11일 사상 첫 온라인 CES2021

사상 첫 온라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2021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 업계는 코로나19 폭풍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뽐내려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11일(미국 서부 현지시간) CES2021에서 ‘LG 롤러블(가칭)’을 공개할 예정이다. 롤러블은 롤러블 OLED 패널을 이용한 새로운 폼팩터 스마트폰으로, LG

전자 익스플로리 프로젝트 2번째 제품이다. 지난해 말 중국 VIVO가 시제품을 공개하기 했지만, 실제 출시는 LG전자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OLED 디스플레이도 혁신 패널을 잇따라 선보인다. 투명 OLED와 벤더블 OLED다. 투명 OLED는 이미 중국 지하철과 TV 등으로 상용화된 제품, 벤더블 OLED는 필요에 따라 최대 1000까지 구부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화면에서 소리를 내는 CSO 기능까지 탑재해 모니터의 미래를 보여준다.

/김재웅 기자 juk@

삼성전자는 CES2021 기간 ‘퍼스트룩’ 행사를 통해 차세대 TV 라인업을 소개한다. 마이크로 LED TV와 함께 미니 LED, 퀸텀닷 OLED 제품까지 공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4일에는 갤럭시S21 언팩 행사도 개최된다. 올해 처음 출시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온디바이스 AI를 비롯한 최신 기술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x86 PC용 CPU 시장을 둘러싼 인텔과 AMD 경쟁도 기대된다. AMD가 고성능 프로세서를 새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인텔도 11세대 라인업을 선보이며 선두사수에 나선다.